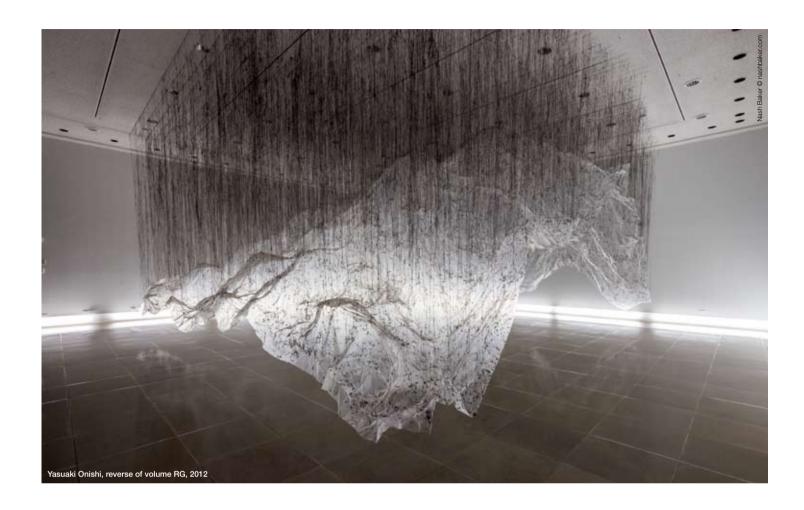
## REVERSE OF VOLUME RG



plastic sheeting and black hot glue, to create a monumental, mountainous form that 접착제를 사용해 공간을 떠도는 듯한 거대하고 웅장한 형태의 작품이다. '보이지 않는 형태의 appears to float in space. The process that he calls 'casting the invisible' involves draping the plastic sheeting over stacked cardboard boxes, which are then removed 그 느낌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이 '반전'된 조각품에는 부정적이거나 빈 혹은 남겨진 to leave only their impressions. This process of 'reversing' sculpture is Onishi's media 공간의 본성에 대한 오니시의 사색이 담겨있다. 작품은 설치물에 접근하거나 바깥쪽의 유리 tation on the nature of the negative space, or void, left behind. Onishi wanted to create an installation that would change as visitors approached and viewed it from outside 모양을 이루는 외부 표면과 검은색의 수직적인 가닥으로 이루어진 밀집된 층을 볼 수 있으며, of the glass wall to inside the gallery space. Seen through the glass, the undulating, exterior surface and dense layers of vertical black strands are primarily visible. At 보인다. 또한, 좌우 통로를 따라 갤러리 내부로 들어서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텅 빈 공간으로 first glance,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gallery's foyer, it appears to be a suspended, glowing mass whose exact depth is difficult to perceive. Upon entering the gallery 얼룩덜룩한 검은색의 요소들이 관람자들을 허술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는 마치 and walking along the left or the right side, the installation transforms into an airy 피난처 혹은 동굴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며 텐트처럼 그들을 에워싼다. 이 opening that can be entered. Almost like stepping into an inner sanctum or cave-like 설치물은 미국의 라이스 갤러리에서 6월 24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방문객들은 명상 공간의 chamber, the semitranslucent plastic sheeting and wispy strands of hot glue envelop 안팎을 걸으면서 간단한 빛과 형태 그리고 변화하는 선의 성질을 감상할 수 있다. the viewer in a fragile, tentlike enclosure speckled with inky black marks. Visitors can walk in and out of the contemplative space, observing how the simplest qualities of light, shape, and line change. This installation will be shown June at the Rice Gallery in USA by 24 June.

In the installation, <reverse of volume RG>, Yasuaki Onishi uses the simplest materials, 〈부피의 반전 RG〉는 야수아키 오니시의 설치물로 가장 단순한 소재인 플라스틱 시트와 검은색 형상화'가 표현된 작품은 판지로 된 상자들을 쌓고 플라스틱 시트를 걸친 후 상자들을 제거해 벽을 통해 갤러리 내부를 바라봄에 따라 형태가 변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유리를 통해서는 파도 갤러리 로비의 중앙에서는 공간에 매달린 채 정확한 깊이를 알기 어려운 빛나는 덩어리처럼 전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작품은 접착제로 만들어진 성긴 가닥들과 반투명한 플라스틱 시트,

www.ricegallery.org, \*\*\*Commission, Rice University Art Gallery, Houston, Texas



